

## 제2절 대전광역시

### 1. 지역경제 현황

#### (1) 지역경제 일반현황

대전지역의 각종 경제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전형적 대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SOC 및 서비스업의 비중(82.4%)이 높은 수준이며, 재정자립도(75.0%)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액은 2000년 13조 559억원에서 2006년 19조 514억으로 43.9%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48.1%)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는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0.4%)을 상회하고 있다.

사업체수와 취업자수는 2006년말 8만 9,851개와 66만 1,000명으로 각각 전국대비 2.7%와 2.8%를 차지하여 2000년의 2.9%와 2.7%를 비교해 볼 때, 사업체수 비중은 감소하였고, 취업자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지역의 해외 수출액은 2006년 23억 9,600만불로 2000년 8억3,700만불 보다 약 3배정도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0.7%로 사업체수의 비중 2.8%와 비교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는 2006년 1,174천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제활동참가인구는 692천명으로 58.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0년의 57.6%보다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취업자 수는 2006년 661천명으로 2000년 대비 14.1% 증가하여 전국의 9.4%보다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기타 재정자립도는 2006년 72.8%로 나타나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특·광역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도 단위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1인당 GRDP는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대전지역의 일반경제 현황

구 분		전 국		대 전	
		2000	2006	2000	2006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577,970,942	856,191,884	13,559,020	19,514,915
인구	천명	47,977	49,624	1,391	1,476
1인당GRDP	만원	1,230	1,725	971	1,322
사업체수	개	3,013,417	3,226,569	86,832	89,851
수출액	백만불	172,268	325,465	837	2,396
15세이상인구	천명	36,186	38,762	1,056	1,174
경제활동인구	천명	22,134	23,978	608	692
취업자	천명	21,156	23,151	579	661
재정자립도	%	59.4	54.4	76.9	72.8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각년도

## (2) 지역산업구조

대전지역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2006년말 현재 농림어업이 0.2%, 광업 및 제조업 17.0%, SOC 및 서비스업이 82.8%를 차지하고 있음. 1996년 이후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은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업 및 제조업은 200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1996년 79.9%에서 2006년 8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뚜렷한 서비스산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6~2006년 약 10년간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광공업 생산액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1조 9,064억원에서 3조 199억원으로 58.4% 증가하였으며, SOC 및 서비스업은 7조 7,927.93억원에서 14조 7,396억원으로 89.1% 증가하여 제조업보다 SOC 및 서비스업의 증가추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업은 2006년 현재 전산업 대비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6년의 1.0%보다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1996년 14.8%에서 2006년 9.5%로 감소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영세성 및 어려움이 반

영되고 있다.

<표 1-2> 대전지역의 산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6	9,77,155 (100.0)	73,102 (0.7)	1,906,164 (19.5)	97,413 (1.0)	1,443,728 (14.8)	6,251,148 (64.0)
2001	13,131,856 (100.0)	68,599 (0.5)	2,606,585 (19.8)	281,350 (2.1)	1,180,583 (9.0)	8,994,739 (68.5)
2002	14,440,562 (100.0)	66,840 (0.5)	2,912,722 (20.2)	276,605 (1.9)	1,309,322 (9.1)	9,875,073 (68.4)
2003	15,683,912 (100.0)	59,374 (0.4)	2,736,377 (17.4)	263,663 (1.7)	1,690,102 (10.8)	10,934,396 (69.7)
2004	16,799,759 (100.0)	62,887 (0.4)	3,201,989 (19.1)	300,604 (1.8)	1,717,085 (10.2)	11,516,194 (68.5)
2005	17,198,728 (100.0)	44,132 (0.3)	2,981,210 (17.3)	289,527 (1.7)	1,709,444 (9.9)	12,174,415 (70.8)
2006	17,803,913 (100.0)	44,401 (0.2)	3,019,938 (17.0)	270,476 (1.5)	1,699,841 (9.5)	12,769,266 (71.7)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과 지출」, 각년도

### (3) 산업별 집적 현황

지난 1996~2006년까지 11년간 대전지역 제조업체(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주요지표를 보면, 우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200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비중이 16~17%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서 사업체수 비중으로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가가치 비중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 5.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는 비중이 높으나 생산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중은 2001년 이후 증가추

세에 있다.

음식료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이 비교적 높지만, 사업체수를 제외하곤 모두 감소추세에 있다. 섬유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1996년 이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생산액과 부가가치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대전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96	'01	'06	'96	'01	'06	'96	'01	'06	'96	'01	'06
제조업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음식료품제조업	7.3	7.4	8.5	7.2	7.4	6.2	10.0	9.3	5.5	9.3	9.9	5.3
섬유제품 제조업 : 통제의복제외	7.1	6.2	4.4	11.6	9.7	4.1	6.4	5.1	1.8	4.6	4.0	2.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1.2	9.9	9.7	5.0	4.1	6.0	3.4	2.0	4.8	3.0	1.9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9	14.4	16.6	11.9	11.4	13.8	12.6	13.1	17.0	10.5	10.6	16.8
기타	58.5	63.1	62.8	67.3	71.4	74.9	73.6	77.5	78.9	81.6	83.6	83.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5인 이상 사업체 기준)」, 각년도.

1996~2006년간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비중 추이를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가운데, 사업체수 비중은 2006년 50.3% 수준으로 매우 높고, 종사자수도 32.2% 수준으로 높지만, 생산액은 13.6%로 매우 낮아, 대전지역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서민형 영세 자영서비스의 특징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도 종사자수와 생산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생산액은 1996년 18.5%에서 2006년 11.5%로 격감하였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모두 2.0% 미만으로 매우 작은 산업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체수와 생산액은 추세적으

로 증가하는 편이지만, 종사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체수 비중은 2006년 현재 7.8%로 낮은 수준이고, 종사자는 20.2% 수준이지만, 생산액은 31.9%로 높게 나타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부문 서비스업은 주로 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의 비중이 모두 30%~40%대로 비슷한 수준의 추세를 보이며, 모두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부문은 해당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종사자수에 있어서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생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건설업의 경우는 지역 건설경기의 부진 현상 속에서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인력부문 구조조정으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생산액도 격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96	'01	'06	'96	'01	'06	'96	'01	'06
서비스산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0.0	0.0	0.5	0.7	0.6	1.3	2.7	1.8
건설업	2.6	2.5	2.8	7.2	4.8	5.9	18.5	11.3	1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8	54.5	50.3	36.4	35.8	32.2	15.2	14.1	13.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7	7.8	7.8	21.7	18.8	20.2	30.2	32.2	31.9
기타	30.9	35.2	39.1	34.2	39.9	41.1	34.8	39.7	41.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지역내총생산과 지출」, 각년도

#### (4)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동향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근 KAIST,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충남대 등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의 입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혁신자원이 집적된 지역 지역으로, 1인당 연구개발비는 전국에서 최고이며, 연구개발비, 연구원수, 여성연구원수,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 투입지표를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집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석·박사 인력, 교원수 등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혁신활동을 통한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활동의 성과지표인 특허건수, 실용신안건수 등도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디자인과 상표 등의 출원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보면, 종합혁신지수 0.98, 지역경제력지수 7.67, GR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15.60으로 모두 전국 1위(2005년)로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도 3.60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역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5> 특·광역시 혁신자원 비교(2006)

구분	단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비교	
										%	순위
연구개발비	억원	273,457	50,002	5,913	3,121	10,931	3,816	5,392	30,620	11.2	3
1인당연구개발비	만원	10,657	7,345	7,731	6,400	12,656	8,603	14,986	15,444	-	1
연구원수	명	256,598	68,075	7,648	4,876	8,637	4,436	3,598	19,827	7.7	3
여성연구원수	명	33,682	12,428	1,204	672	795	535	151	2,274	6.8	3
연구개발인력	명	365,794	100,801	12,677	8,332	12,686	7,495	6,405	27,365	7.5	3
연구개발조직	개	10,888	3,082	466	391	542	243	156	538	4.9	5
특허건수*	건	128,701	44,245	3,238	2,915	4,911	2,320	1,070	9,109	7.1	3
실용신안*	건	20,632	5,649	1,205	1,123	1,517	359	214	1,146	5.6	5
디자인*	건	50,868	19,028	2,288	2,620	2,777	656	355	671	1.3	10
상표*	건	112,157	59,653	3,999	3,144	4,073	1,058	521	2,312	2.1	9

자료 : 교육과학부, 특허청  
 주) \*표시는 2007년도 자료,

지식활동을 중심으로 한 혁신잠재력 측면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

고 있어, 연구자원의 집적뿐만 아니라 지식공유, 활용, 확산 활동 등을 근거로 추정된 혁신잠재력에 있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국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고의 기술보유 지역으로 첨단기술의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

주요 기술로서는 정보기술분야(국산전자교환기, CDMA), 생명과학분야(팩티브), 원자력분야(한국표준형원천 개발, 핵연료국산화), 항공우주분야(우리별 1,2,3호, 무궁화 1,2,3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역의 우수한 IT, BT, NT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융합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5) 향후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지역은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대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와 생산액은 최근 지역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역시 역점을 기울인 결과 증가추세에 있지만, 종사자수는 기술혁신과 자본장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선도기업(대기업) 부재, 기업간·분야간 상호교류 네트워크 미흡, 연구성과의 사업화 부족 및 벤처캐피탈 취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적 산업연관효과를 낮추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이 충청권의 광역경제권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과 생산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보육을 통한 제조업 생산기반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혁신 핵심주체(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기반 고급인력의 양성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정착을 통한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전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출되는 각종 첨단·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응용화·생산화 활동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기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연구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해야 한다.

넷째, 새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청권역의 광역역경제권이 우리나라의 新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주변 권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

##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 발전목표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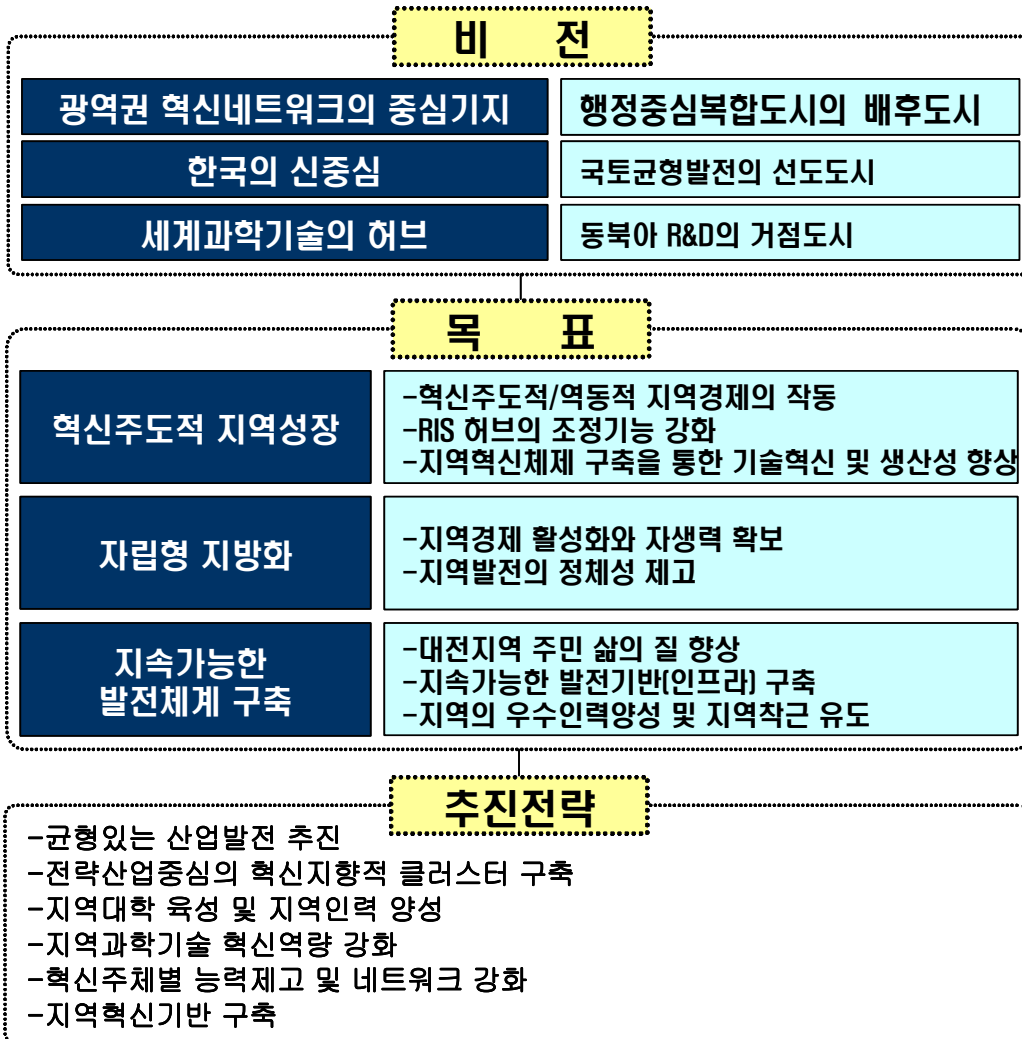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광역권 혁신네트워크의 중심기지', '한국의 신중심도시', '세계과학기술의 허브도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혁신주체별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기본방향

지역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융합 발전 ②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지향적 클러스터 구축 ③ 지역 특성화 발전과 대학의 역할 강화 ④ 지역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⑤ 혁신지원기관 정비 확충 및 혁신기반 조성 등 5대 기본방향을 설정 추진해 나간다.



<그림 2-1> 대전지역 발전 비전 및 목표



첫째,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이를 위해 혁신활동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 및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해 나간다.

둘째, 산업클러스터에 기반 한 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문화된 기술혁신 네트워크 강화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산업과 대학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특성화 관련 대학의 특성화 추진 및 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노력한다.

넷째, 지역의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지역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및 인력양성, 지역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역산업정책으로 추진체제를 개편하고, 지역혁신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내 혁신지원기관을 정비 확충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 3. 추진현황 및 성과

#### 1) 지역혁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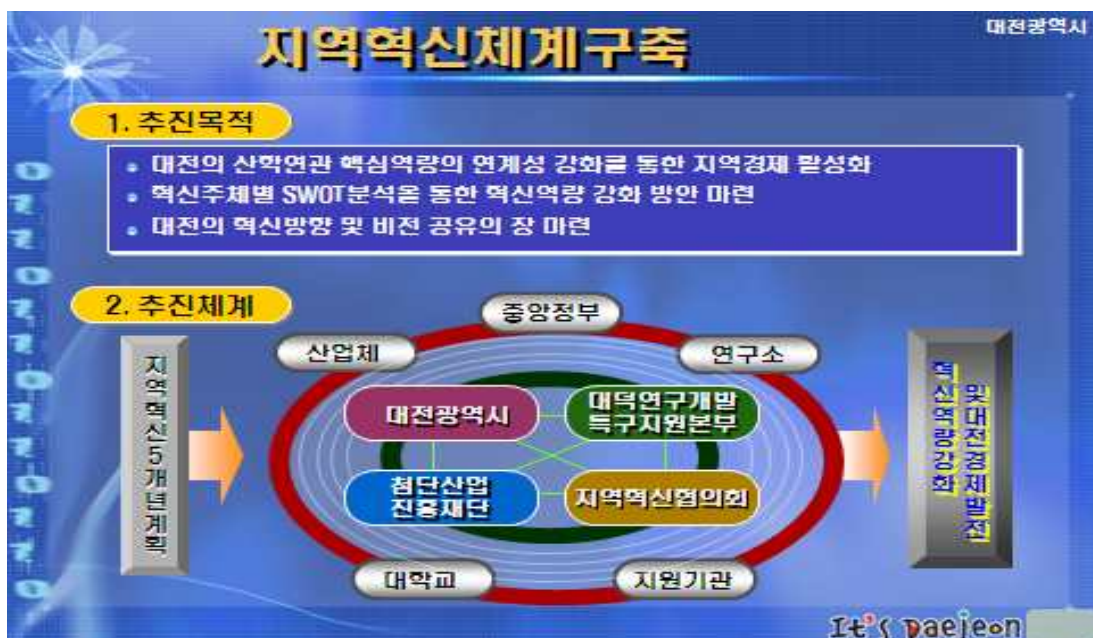
대전지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연구회 활동, 전략산업기획단이 포함된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2008년에 대전테크노파크로 전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학과 부설연구소 등이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대전광역시 혁신경영담당관실이 실무 지원하는 시책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NGO 등 지역혁신주체로 53명의 위원으로 제2기 본협의회를 구성('06.2.27)하였고, 2008년 3월에는 47명의 위원으로 제3기 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 분과협의회로 나누어 기획조정분과(11명), 인적자원개발분과(18명), 전략산업분과(15명), 과학 R&D분과(15명), 교류협력분과(2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2007년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본협의회 4회(서면의결 포함), 분과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워크숍 및 심포지엄 5회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제2단계균형발전계획 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구축계획 심의, 전문대 특성화사업계획 심의, 2007-2008년도 NURI사업 평가 및 심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평가 및 심의, 2007~2008년도 균특회계 국비신청사업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추진력을 결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심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특히 새정부 들어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및 예산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활발한 협의회 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체계 구축



이밖에도 지역혁신 주체들이 상호 정보교류하고 지역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업인들의 모임인 지역기업협의회 및 이노베이션 카페 등이 있다. 또한 2007년에는 2차의 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대덕IT포럼은 100여개의 회원 업체가 참여하여 분기별로 운영간담회를 열고, 월례세미나 및 특별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대덕밸리 IT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전광역시에 혁신경영담당관실(혁신분권, 균형발전담당 등)을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혁신, 균형발전 및 전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무지원 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 2)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대전지역의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과 대덕테크노밸리내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업체가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혁신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하여 대전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최상위 통합조직으로서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4+4)”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는 지역혁신을 선도할 4개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과 4개 新성장산업(유비쿼터스, 국방, 원자력, 항공우주)이 8개의 클러스터협의회와 그 아래 15개의 업종별 Sub클러스터(정보통신분야 5개, 바이오분야 3개, 첨단부품소재분야 3개, 메카트로닉스분야 3개, 4대 신성장산업분야 1개)로 구축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05.11)을 수립하였고, 산·학·연·관 전문가 공모('05.12)를 통해 클러스터별 참여인력을 확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8개 지역혁신클러스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08년 현재 매월 클러스터별 회의개최, 클러스터별 인력양성, 공동사업계획, 클러스터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특허, 마케팅, 디자인,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으로써 기술과 지식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및 기업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산업+상업+휴양·레저+주거」의 자족적 복합단지 기능과 함께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를 산업화 하는 한편, 제조형 벤처우위의 복합단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덕테크노밸리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2007년말 현재 4,226천㎡ 규모의 단지에 322개 기업이 입주하여 160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다. 종업원은 3,27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1,000여개

첨단업체 입주, 연간매출 10조원, 고용 5만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그림 3-2>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 구축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육성, 지역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생산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도약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R&D중심의 대덕연구단지에 생산기능을 결합하고 생산위주의 산업단지에 R&D기능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10년내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고 혁신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으로는 2006년~2007년까지는 기반구축기로서 R&D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8년~2010년까지 첨단기술 창출 및 활용을 목표로 Star기업과 연구소기업 창업,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1~2015년까지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선도허브 육성 및 유치,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과학기술과 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2007년말 현재 107개의 연구소 및 공공기관 벤처기업, 고등교육기관이 입주하여 15,022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중 56개 연구기관에서 11,663명의 연구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인근지역에도 821개의 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이 밖에 벤처보육센터 19개 기관과 270개의 보육업체에서 2,803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3-1>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인근지역 입주현황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현황			인근지역 입주현황	
기관유형	기관수	종사자	지역	기관수
소계	107	15,022	소계	821
정부투자연구기관	10	2,250	대덕연구단지	285
정부출연연구기관	21	6,453	테크노밸리	217
기업부설연구기관	25	2,960	3.4산업단지	318
공공기관	9	445	국방과학연구원 일원	1
벤처기업	38	604		
고등교육기관	4	2,310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비전실현을 위하여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구축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미래 대전경제의 기반이 될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우선 4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는 2005년 1월에 준공한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의 마케팅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위하여 2007년에 공용장비 69종 104대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IT전용벤처타운」을 건립하여 성장단계별로 25개 기업에 대한 입주공간의 제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5개 기업에 대한 IT기업 기술사업화 지원과 40개 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하였다. 바이오산업분야에서는 2005년 2월에 준공된 「바이오벤처타운」에 2007년 우수의약품 제조시설(GMP) 구축 및 운영하여 '바이오테크노폴리스'육성기반을 다졌다.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분야에서는 2002년에 설립된 「나노종합Fab센터」의 증축을 위하여 2007~8년까지 50억원을 투입, 3,300㎡을 조성하여 입주공간 확대 및 나노기술 활용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였다. 메카트로닉스산업분야에서는 2006년 9월에 준공된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 2007년 10개기업 입주 및 정밀 측정지원실을 운영하여 메카트로닉스 관련 연구개발기술 활용과 전통기계산업 첨단화를 유도하였다.

4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 등 클러스터 글로벌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국방분야에서는 3군본부,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국방과학클러스터 특화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벤처국방산업 육성, 국방기술 열량강화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였다. 원자력산업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된 「원자력기술 Science Park」조성, 상업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유비쿼터스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기반조성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IT Korea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u-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의 단계적 추진과 정보자원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타 사업으로는 「대덕테크노마트 하이테크홀 전시장을 기존 14개 부스에서 2007년 24개 부스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 9월과 10월에 충청권 벤처프라자와 벤처국방마트를 각각 개최하였다. 또한 산업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대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 및 창업예비자 교육 등에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총550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2007년 컨설팅 특허분쟁상담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 Pool을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100개 업체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및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허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이전, 해외시장개척지원(7개 기업)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덕밸리 기술거래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007년 4회의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회의 민간거래기관협의회 개최 기술거래사업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 5)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산학연 협력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술개발사업화 및 전문 인력양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도모와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산학연 협력 대상사업으로 2007년 11개 사업에 462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는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애로기술 등을 해결하였으며, 대학위탁연구실 운영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참여대학생 우선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산자부(새정부 들어 '교육과학부'로 개편) 계속사업으로는 충남대학교 등 5개 사업단 인력양성사업인 BK21사업, 4개대학 5개 사업단 인력양성사업인 NURI사업, 바이오 등 3개 센터 연구개발사업인 RIC-T(지역혁신센터)사업을 각각 추진하였고, 이공계대학(한밭대) 현장인력양성사업인 산학중심대학 육성사업, 전문대(대덕대학) 현장인력양성사업인 산학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타 산학연 협력사업인 지역연고산업 선정 및 지원산업을 추진하였다.

## 6) 지역 인프라 확충 :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역 인프라 확충사업은 대전지역 도시 근교농업 육성 및 지역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2007년 근교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추진



(2006~2010) 사업으로 10개 부문 65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토하여 FTA 확대 등에 대비 근교농업·농촌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였다.

우선,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자치구당 1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농로 포장 및 정주권 개발에 9억 여원을 투입하였으며,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정안저수지에 7억 원, 농업용수로 등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 4억8천만을 각각 지원하였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 사업에는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영농자재 구입지원, 쌀겨·오리농법 등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4개단지 36백만원), 친환경 인칼균 제조기 공급(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농촌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 사업에 32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농산물 판매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전시판매토너 설치·운영(1~2개소 시범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친환경 생산농가 현장 견학 및 안전먹거리 교육(6회 200명)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였다.

#### 4. 향후 추진계획

2008년도는 새로운 혁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해로 삼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체적인 의제 설정과 공론화,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조직 기능 역할 조정, 지역 현안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개, 유연한 협의회 활동·운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자율의 증진을 통한 지방 경쟁력 확보 등 4개 부문에 역점을 두어 지역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칫 약화 될 수 있는 최근의 혁신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혁신환경 조성의 중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혁신의 수

범사례지역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사업의 추진방향은 새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기초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규제완화 및 광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 경제권 구축 등 신정부의 지역정책 기초에 부응하여 지역간 협력, 지역간 갈등조정, 민간 및 시장의 참여 확대를 가능케 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보다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로는 첫째,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조직과 구성,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지역정책에 대해서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평판과 전문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화합을 달성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역자율의 증진을 통한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조정대상 확대로 지역자율성에 근거한 정책마련을 촉진하고 협의회의 심의·조정절차의 내실화와 정책협의의 정례화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달성하며, 주거환경, 지방의 공교육 개선 등 주민친화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발굴과 의제화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거버넌스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협의회와 시, 지역상공인, 대학 및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현안 사업체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하고, 특히 새정부의 현안인 광역경제권발전 구상과 충청권 경제협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충청권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대전·충청권 공동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쟁점별 세미나·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합의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도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광역경제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연계방안 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새로운 대전·충청권 지역협력사업을 분과위원회별 세미나·포럼사업 등 활동강화를 통해 발굴·추진하고, 시-협의회간 관계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을 중심으로 시와의 신뢰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개선해 나가며,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진행할 것이다.